

Thyrotoxicosis is not a cause of variant angina but a triggering factor

전북의대 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

이선화 · 채제건 · 이경석 · 김원호 · 고재기

배경 :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다양한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고, 특히 관상동맥 연축과 관련된 변이형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들에서 갑상선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변이형 협심증의 관해 유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왔다. 본 저자들은 최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반한 변이형 협심증 환자 3명을 경험하였고, 이들에서 정상 갑상선 기능을 회복한 뒤 관상동맥 연축 유발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변이형 협심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관상동맥 연축이 증명되었고, 혈액 검사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었던 환자 3명에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여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후 항협심증 약물을 반감기의 5배 이상 충분히 중단한 후 이른 아침에 ergonovine 유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평균 연령은 52 ± 7 세였고 남자가 1명이었다. 심혈관계 위험인자는 흡연자가 1명이었고, 고혈압이 2명 있었다. Drug-free 상태에서 ergonovine 유발 심초음파상 양성 1명, 음성 2명의 결과를 보였다. 양성이었던 환자는 30 pack-years의 흡연자였다. **결론 :**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관상동맥 연축을 유발함으로써 변이형 협심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것의 발생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흡연이나 고혈압과 같이 관상동맥 내피세포 기능 장애 발생의 위험인자를 기전에 갖고 있는 경우 이 자체가 변이형 협심증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동반된 모든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정상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변이형 협심증의 관해를 유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운 기후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위험인자 인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최원호 · 최윤희 · 권성욱 · 도준형 · 남궁준 · 이성윤 · 이원로

목적 및 배경 :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관상동맥의 연축을 유발하는 추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혹서기에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율이 높음이 보고되었고,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혹서기에도 관상동맥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자들은 최근 3년간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더운 기후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 하였다. **방법 :**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관상동맥증후군(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 151명 &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546명)으로 진단받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및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69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관상동맥 재관류술 건수(경피시술+개흉수술)와 기상청의 월별 평균 기온(서울 기준)자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 관상동맥 재관류술은 3년간의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8월에 80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7월에 70건, 6월에 69건 순으로 이들 3개월간의 시술이 전체 시술의 31.4%를 차지하여 3~5월까지 162건(23.2%)과 9월~11월 171건(24.5%)보다 많았다. 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의 발생건수는 12월에 18건(11.9%)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7건(11.3%)이었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이 29.1%로 가장 많고 겨울, 가을, 봄 순이었다. 또한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계절별 발생과 연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지만 여름에 고령환자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이환율이 더 높지는 않았다. **결론 :** 단일센터 경험이지만 최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평균기온이 높은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더운 기후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이러한 계절에 따른 발생빈도의 변화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평균기온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